

제38회 전국교역자 여름수양회 일정 확정되다

제주도 펠리플러스; 6.20~23(3박 4일)

총회 제106회기 교육부장 김정용목사(중울산교회)는 제38회 전국교역자 여름수양회 장소와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교육부 전체 회의의 결정대로 지난 22일 현지 답사단(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교육부 서기 김요환 목사)을 제주도에 보내어 예정 장소들을 돌아보고 하고 그 결과보고에 따라 장소는 제주도 펠리플러스 호텔로, 일정은 6월 20일(월)부터 23일(목)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교육부에 의하면 후보 예정지로 떠오른 명소호텔 3개 처를 방문하여 관

계자들과 상담(商談)한 결과 펠리플러스 호텔이 제시한 내용이 본 교단이 제시한 조건에 근접하여 그 곳으로 정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수양회장소로 확정된 펠리플러스 호텔은 3년 전 여름수양회를 개최한바 있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 결정하기에 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결정의 조건으로 정한 원칙에 부합한 점으로는 공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았으며, 식비와 숙박비를 3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배려해 주어 가성비가 높았고, 주변 환

경과 경관이 매우 좋아서 높은 평가를 했다고 한다.

그 외에 아침저녁 산책이 용이한 산책로가 5분 거리에 잘 가꿔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해수탕, 해안에 안전하게 마련된 구멍치기 낚시터까지 개발되어 있어서 금상첨화였다고 확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예정된 수양회 일정은 첫째 날, 3시부터 등록 후 입실완료하고 저녁식사 후 개회예배, 둘째 날 - 꽃자왈-오설록-워터쇼 · 함덕해안로 산책으로 마치고, 셋째 날은 선택 관광의 날로서 한 팀은 배편으로 출발하여 마라도를 돌아보는 시간에 다른 한 팀은 신창해

안로를 관광한 후에 합류하여 수월봉-방죽교회-치유의 숲-더마파크 쇼 관람으로 일정을 마친다. 넷째 날 조찬 후에 폐회예배로서 수양회 모든 일정을 마친다.

기간 동안에 갖는 집회는 개회 및 폐회예배, 그리고 3차례에 걸친 저녁말씀 집회, 3차례의 새벽집회를 준비한다고 한다. 코로나의 위험 중에도 이미 많은 교역자들이 노회별로 참가신청을 하고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여름 수양회의 회비는 1인당 100,000원이며, 부부 등록시 180,000원으로 할인혜택을 주어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500,000원 이상 후원하는 경우에는 교회광고와 함께 부부 1실 숙소를 제공한다고 한다.

부활절 축하 메시지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살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감격이 우리 교단에 속한 산하 노회와 개체 교회들 중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새 봄 주일아침에 인봉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주님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하는 인사를 같이 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하게 한 복음의 원천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만약에)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부활을 변증한바 있습니다. 그의 변증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피차간에 축하할 이유를 분명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부활절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 사함 받았으니 축하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제 삼일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였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면제 받게 되었으니 이를 알고 믿는다면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구주를 얻었음을 축하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

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분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신기한 존재도 물론 아닙니다. 사망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진리의 증인됨을 축하합니다. 하마터면 사도들이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뻔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사망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이 진리로 우리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어서 살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증인됨이 어찌 사도들뿐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예수님 살아 나셨고, 우리도 부활하였다는 부활소식이니 이를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세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됨을 축하합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으리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

총회개혁신학연구원 1학기 종강예배; 교직원회의

제2학기 개강은 5월21일, 종교개혁사 등 6과목으로 확정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목사, 재언교회는)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지난 4월 23일(토) 오후 2시 종강예배를 드렸다. 한편 종강예배는 교무처장 이다윗목사(천양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찬송가 502장을 함께 부른 후에 총무처장 정영덕 목사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태 16:21~24절을 봉독하고 이 사장 윤서구 목사(임마누엘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교수부장 황호관 목사(꿈꾸는교회)의 격려사, 교단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가 총회소식을 공지하고, 이어서 교무처장 이다윗목사가 학사일정을 발표하고, 원장 임종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금번 학기는 코로나 4단계를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일정을 조정하는 등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재학생들과 교수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였고 교수진의 코로나 확진으로 위기도 있었으나 수업일정을 지혜롭게 조정해가면서 은혜 중에 종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편 종강예배 전에는 2022학년도 2차 교직원회의를 열고 회계보고를 받고 학사일정 등을 심증토의 하였다. 한편 제2학기 개강일을 5월21로 정하고, 수강과목을 종교개혁사(임종학 교수), 신조학(윤서구 교수), 교회정치(황호관 교수), 모세오경(박만진 교수), 신구약 중간사(김요환 교수), 바울서신Ⅲ(정영 교수)등을 강의할 것을 확정할 것과 6월 중에 아우회를 계획하고 학생과 교수간의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서노회(노회장 하예성 목사)는 지난 4월4일(월요일) 오전 11시, 김포시 소재 디베라교회(신연식목사) 예배당에서 제83회 정기회를 열고 임원 선출 등 회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부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김요환목사(송악원능교회)가 인도하였으며, 부노회장 신연식 목사(디베라교회)의 기도가 있는 후에 회의록서기 심기석 목사(이웃교회)가 역대상11:10절을 봉독하고, 부서기 공윤팔목사(아무르선교회)의 선포문 연주가 있는 후에 노회장 하예성목사(생명줄동포교회)는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개회예배는 중경노회장 김용진 목사의 축도로 마치었다. 한편 이날 성찬식은 중경노회장 조성영 목사가 집례 하였으며, 권태홍장로(디베라교회)는 분병 및 분잔 위원으로 섬겼다.

조성영 목사는 고전11:23-26절 말씀을 봉독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축도함으로 성찬식을 마쳤다. 제83회 정기회를 위하여 부서기 오성원목사(천안 권능교회)가 기도하고 노회장 하예성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제106회기 총회장 박형진목



사(새은혜교회)의 노회 방문을 환영하고 총회장의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정취한 후에, 제83회정기회절차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를 청취하고 유인물대로 받아 처리한 후에 임원선출은 전례대로 중경노회장과 현 노회장으로 구성된 임원전행위원회에(위원장 황호관 목사)위임하여 별항과 같이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조성영 목사, 송인기장로), 개혁공보이사(조성영 목사), 신학교이사(하예성목사), 세계선교회이사(황호관 목사)를 선임하고, 교역자회(회장:조성영목사, 회계:박광주 목사)의 조직을 추진하는 한편 제107회 총대를 별항과 같이 선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임노회장은 직전 노회장에 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꿈꾸는 교회의 장로 1명 증원청원은 허락하고, 제107회 총회 현의안은 임원회와 중경노

회장단에서 심사숙고하여 상정하기로 하고 모든 잔무를 임원회에 일임하고 폐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폐회선언하고 노회장이 폐회예배를 인도하였다. 한편 디베라교회 당회는 오찬을 준비하여 공개하였으며, 신연식목사는 제83회 정기회 기념품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제83회기 임원

노회장:신연식목사, 부노회장:오성원 목사, 서기:김요환목사, 부서기:공윤팔목사, 회의록서기:심기석목사, 부회의록서기:김주성목사, 회계:이상복 목사, 부회계:강창구장로

제107회 총회총대

자동총대: 김용진, 황호관, 목사총대:박형진,하예성,김요환,신연식, 이상복
장로총대: 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2022년 제42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주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리라! (삼상7:12)



1부
개회예배
2부
목사·장로 기도회
3부
노회장·서기 워크숍

- 일 시** : 2022년 5월 23일(월)–24일(화)
(접수: 오후3시부터, 개회예배 4시 시작)
- 장소** : **홍익대학 국제연수원 / 전화 (044)860-7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안터길 89
 - **참석** : 목사,장로(부부도 가능)
 - **회비** : 노회찬조 200,000원 , 개인 20,000원
 - **통장** : 농협 301-0116-9212-8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광고** : 광고후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 참석인원** 5월10일(화)까지 확인 요망(식사준비, 방예약)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총회장 박형진 목사
서기 김정호 목사

社 說

부활신앙을 확인할 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1세기 교회와 21세기 교회는 많이 달라졌다. 좋은 표현을 하자면 변화되었고, 성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화보다는 변질이 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변질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신앙의 퇴색이라고 생각한다. 1세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세워졌고 그들의 뜨거운 신앙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 신앙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순수했고, 또한 분명했으며 거기에 따른 열정이 대단했다. 부활신앙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을 동반했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은 세상 것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교회는 너무 긴 세월이 흐르면서 부활신앙이 아니라 참신신앙 내지는 수양신앙으로 본질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신화적이거나 신화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살아

나셨다는 엄연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당사자로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 할 수 없었다.

예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다. 예수의 부활은 사상이나 정신의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께서 사망권세를 물리치시고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이 신학는 쟁의 주제가 되었고, 해석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해야하는 도그마가 되어 버렸었다.

따라서 예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신앙 역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교회는 본질을 옅으로, 변두리로 밀어 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부활절을 계기로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에 불이 붙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찾은 것이요 실추된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부활하신 예수 없이는 속죄도 없고, 재림도 천국도 없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없다.

목사, 장로 기도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1년에 한 번 목사와 장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순수한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자리가 목사, 장로 기도회라 생각합니다. 물론 총회도 있고, 여름 수양회도 있으나 총회는 정치적인 화합이어서 복잡한 여러 일들로 서로 간에 고도의 신경을 쓰고 갈등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여름 수양회는 교역자들만의 잔치이어서 장로님들은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나 목사 장로 기도회는 전혀 다르다.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을 위해서 모인다.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갈등이나, 유, 불리를 따지겠는가? 목사와 장로가 한 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단과 총회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만 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신년 하례회에 맞춰서 순가락 없는 형식으로 해치우고 말았다. 총회에서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모이기로 현의하고 가결했으나 지속되지 못했지만 106회기는 기대 밖의 일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번 회 목사 장로 기도회에 적극 참여함으로 차기를 준비할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이왕에 시도한 일이라면 성공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선배들이 마련한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하여 이어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볼지 하지 않은가? 우선 모임에 성공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지 못했지만 방역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었으니 안 모임 핑계는 일단 제 거면 셈이니 서로 권하여 많이 모여서 힘써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흔들 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경기노회 제198회 정기회

노회장 박만진 목사 연임; 서기 박광식 목사

경기노회(노회장 박만진 목사)는 지난 4월11일(월) 오전 10시 제198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박만진 목사의 노회장연임 등을 결의하는 회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례 왔다. 노회는 종로구 3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정기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노회서기 전기원 목사(예성교회)가 인도하였으며, 부노회장 박병욱 장로(꽃밭교회, 부총회장)가 기도하였다. 회의록 부서기 정용경 목사(새영교회)가 마태7:3-44절을 봉독한 후에 노회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 교단 사무총장)는“십자가에 달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중경 노회장 이해동목사(은누리사랑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성찬식은 중경노회장 박광식 목사(꽃밭교회)가 집례하였으며, 정선경목사(희망찬교회)가 기도하고 집례자가 고전11:3-6절을 봉독한 후에“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순서에 따라 분병, 분잔(위원:류기정장로, 꽃밭교회)으로 이어졌다.

이날 성찬식은 방역을 위하여 성찬기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찬식은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곧 이어 노회장 박만진 목사의 모두 발언으로 제198회 정기회의 회무가 개시되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절차에 따른 각종보고의 건을 처리 하고, 현 노회장 박만진 목사의 연임 안을 의결하고 별항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상비부서의 조직과 인사부 보고를 받고 규칙의 일부개정을 단행하였다. 총대선임, 회의록 채택 등 잔무를 임원회에 일임하고 제98회 정기회 폐회예배를 드렸다.

제198회기 경기노회 임원명단

노회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 부노회장 박병욱장로(꽃밭교회), 서기 박광식목사(꽃밭교회), 부서기 오영진목사(은세상교회), 회의록서기 박광욱목사(선한이웃교회), 회의록부서기 조경호목사(새생명교회, 회계 박병욱장로(꽃밭교회), 부회계 정용경목사(새영교회)

전북중부노회 제173회 정기회 성료

신임 노회장에 중경총회장 정완득 목사 추대



전북중부노회(노회장 유남규목사)는 지난4월12일(화) 오전10시 전주 성인교회(정완득목사)당에서 제173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최현일목사(성예교회)의 인도로 중경노회장 양형용목사(성은교회)가 기도하고 인도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노회장 유남규목사(여울림교회)의 “진심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중경노회장 진상운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제173회 정기회의 회무는 의장 유남규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절차보고 및 각종 보고를 받은 후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임원선출 방법은 중경 노회장단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여 임원을 선출하기로 한바 전형위원장 임종학목사가 임원선출 경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노

회의 분위기 쇄신과 결속력 강화, 그리고 단합을 위해 총회장과 노회장을 역임한 정완득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임원의 명단을 발표하니 전 회원이 만장일치 박수로 받았다.

신·구임원 교제와 화상분배가 있은 후 신임노회장 정완득목사가 취임인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감

사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은 후 고시부 보고를 받고 목사후보생고시 응시자와 전도사고시 응시자 6명에게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공천위원회 보고 및 회의록채택 등 잔부 일체를 임원회에 맡기고 노회장 정완득목사가 고전4:1~2절을 봉독하고 “충성합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에 기도하고 173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언하였다.

제173회 전북중부노회 신임원

노회장:정완득목사(성인교회), 목사부노회장:최현일목사(성예교회) . 장로부노회장:안영조장로(동산교회), 서기:박숙희목사(동산교회),부서기:박찬섭목사(나눔의교회), 회의록서기:정영덕목사(파송), 부회록서기:정행남목사(벨렐교회), 회계:진상운목사(에벤에셀교회), 부회계:김주연목사(로렘나무교회)

전북노회, 제173회 정기회 개최

한소망교회 예배당에서; 노회장 박중윤 목사

전북노회(노회장 김정호목사)는 지난 4월 12일(화) 오전 10시, 제166회 정기회가 한소망교회당(김정호목사)에서 회집되었다.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박중윤 목사(화평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회계 조성운 장로(김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서기 홍주일 목사(모악교회)가 마태10:1~4절을 봉독한 후에 노회장 김정호 목사(한소망교회)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직전 노회장 최영일 목사(새사랑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절차에 따라 회무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임원을 별항과 같이 선출하였다. 임원을 선출한 후에 모든 잔무를 임원회에 일임하고 폐회



예배 후에 폐회를 선언하였다.

제173회 전북노회 임원명단

노회장:박중윤목사, 부노회장:홍주일목사, 장로 부노회장:조성운장로, 서기:김해수목사(예수촌교회), 부서기:노연수목사(군산교회), 회의록서기:한권능목사(수정교회), 회의록부서기:유덕수목사(반월주사랑교회), 회계:김재호장로(한소망교회), 부회계:양승철장로(서현교회)

서울남노회 제93회 정기회

김지호(성현교회), 김단율(크리스포스 노래하는 교회) 목사 임직

서울 남노회(노회장 김정용목사)는 지난 4월 18일(월) 오전 11시, 성현교회(강대민목사)시무예배당에서 제93회 정기회로 모여 회무를 처리하였다.

정기회에 앞선 개회 예배는 서기 이다윗 목사(찬양교회)가 인도하였으며, 부노회장 임진철목사(낙원교회)가 기도하였다. 이어서 인도자가 대상16:34-36절을 봉독하고 중경노회장 김선영 목사(월대비전교회)의 특송이 있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노회장 김정용목사(중울산교회)는 “오직 감사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회 예배는 중경노회장 장영광목사(광일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곧이어 개시된 제93회 정기회는 의장 김정용 목사의 인사에 이어 임시채택된 절차에 대로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다.

특별히 고시부의 장로고시와 목사고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김지호(성현교회), 김단율(크리스포스 노래하는교회)의 목사고시 합격을 축하하고 목사 임직을 허락하였으며, 선교사 문선영목사를 신임회원으로 반기로 결의한 후에

오찬을 위하여 정회에 들어갔다.

한편 오찬 후에 가진 이날의 임직예식은 서기 이다윗목사가 인도하고, 중경노회장 박춘배목사(수원성심교회)의 기도 후에 인도자가 베푸는 1~2을 봉독하였다.

노회장 김정용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예배와 예식규범에 따라 서약한 김지호, 김단율의 목사 임직을 위한 안수기도가 이어졌다.

서울남노회 중경노회장단이 안수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김정용, 장영광, 강대민, 김만술, 박춘배, 임진철, 김선영, 김경호)위원장 김정용목사가 기도하고 서울남노회 소속 목사 되었음을 공포하였다. 중경노회장 강대민 목사의 권면과 중경노회장 장영광 목사와 중경노회장 김만술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임직자 대표로 김단율 목사의 인사와 김지호 목사의 축도로 임직 예식을 마쳤다. 정기회의 회무를 마친 후에는 국회도에서 1박 2일간의 교역자 친목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경중노회 제52회기 정기노회

경중노회(노회장 이철영목사)는 지난 4월19일(화) 오전 11시, 은혜로 교회 예배당(이철영 목사)에서 제52회 정기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하였다.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중경노회장 조신제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중앙에나교회 신대식 목사가 기도하고 룰 8:28절 말씀을 봉독하였다. 노회장 이철영 목사(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서기 전대천 목사(주찬양교회)의 광고한 후에 부노회장 김동현목사(회복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임원을 선거하여 별항과 같이 확정하고 잔무를 임원회에 맡기고 노회장 이철영 목사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리고 폐회하였다.

제52회 경중노회 신임원 명단 노회장: 이철영 목사(은혜로교회), 부노회장: 김동현목사(회복교회), 부노회장: 이형환장로(강남교회), 서기: 전대천목사(주찬양교회), 부서기: 김연홍목사(화평교회), 회의록서기: 신대식목사(중앙에나), 부회록서기: 신현국목사(반석교회), 회계: 조신제 목사(소망교회), 부회계: 한연숙장로(영복교회)

경 기 노 회



노 회 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
부 노 회 장 박병욱 장로(꽃밭교회)
서 기 박광식 목사(꽃밭교회)
부 서 기 오영진 목사(은세상교회)
회의록부서기 바광욱 목사(선한이웃교회)
회의록부서기 조경호 목사(새생명교회)
회 계 박병욱 장로(꽃밭교회)
부 회 계 정용경 목사(새영교회)

전 남 노 회



노회장 서용진 목사

노 회 장 서용진 목사(상촌교회)
부 노 회 장 김원철 목사(성복교회)
장로 부노회장 한영부 장로
서 기 김춘식 목사(살롬교회)
회의록부서기 한인택 목사(참빛교회)
회 계 송평식 장로

성경강해



장영 목사
(신약학 교수)

오늘은 계시록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일곱 인봉을 하나하나 떼어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 인봉에서부터 네 번째 인봉을 뿜 때까지 네 마리의 말탄자들은 인간들의 죄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수 6:178).

하지만 말을 탄 자들에게 땅의 4분의 1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아직도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제한적인 심판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다섯 번째 인봉을 떼는 환상은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음을 의미하고, 여섯째 인봉을 떼는 환상은 마 24장에 언급된 종말의 징조를 연상시킵니다. 결국 본장에 언급되고 있는 심판의 모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제한적인 진노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인봉재앙은 두루마리를 다 열기 전에 책표지에 써져있는 제목이나 요약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논점을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런 재앙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로는 6:2의 '흰 말 탄자'가 과연 19장의 흰 말 탄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6:1-8에 승리를 의미하는 흰 말, 전쟁을 의미하는 붉은 말, 고난을 의미하는 검은 말, 죽음을 의미하는 녹색말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말탄자들의 재앙들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5분 강의노트 (14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칼, 기근, 짐승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을 뜻하는 전형적인 쪽들로 나옵니다(참고, 렘 29:17이하, 34:17, 38:2, 42:17, 22, 44:12이하, 27; 겔 6:11이하, 7:15, 9:4, 14:12-23). 두 번째는 6:8 후반절을 보면 "... 저희가 땅의 사본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들째)과 흉년(세째)과 사망(네째)과 땅의 짐승(첫째)으로써 죽이더라."고 앞의 재앙들을 포괄해서 정리해주고 있음을 볼 때, 네 재앙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6:2의 '흰 말 탄자'는 과연 19장의 흰 말을 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듯 '네 말을 탄 자들'은 악한 세력의 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19장의 흰 말을 탄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의 '흰 말 탄자'는 그저 악한 모습들 숨기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짓말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짐승으로, 그는 19장의 어린 양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6:1-8에서 '네 말 탄자'의 환상들의 묘사는 주후 60~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지진, 전쟁들, 로마대화제, 화산폭발, 곡물기근 등과 같은 요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요한은 이러한 '네 말 탄자'를 등장시켜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제공하고 있는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정을 고발하며,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9-11의 다섯 번째 인봉과 6:12-17의 여섯 번째 인봉은 제 7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먼저 6:9-11의 다섯 번째 인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1절에서 어린 양이 "아직 잠깐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결과로 그들이 신원 받은 모습을 7:9-17에서 자세히 보여줌으로 그 의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2-17절 여섯 번째 인봉재앙에서 진노의 큰 날에 대한 묘사는 신구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묘사들과 유사합니다. 그것들 중 두 구절만 예를 들어보면 12절에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참고, 마 24:29, 사 50:3, 욥 2:31절), 그리고 16절에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참고, 호 10:8, 욥 23:30).

이와 같이 다른 묘사부분들도 다른 성경구절들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이러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랴"란 질문에 대해서 다음 장인 7:1-8절에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144,000명이 인 맞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조직신학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죄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 즉 영계에서 시작하였음을 말한 바 있다. 사탄에 대한 견해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심리론적 견해로 아더 레이 온스는 그의 책 "제2의 도래, 미국의 사탄주의"에서 "인간들의 심리적 진화 과정 중에 본능 속에 나타나는 공포심"이라고 한다. 즉 사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추상론적 견해로 사탄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집합대명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이원론적 존재라는 견해이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와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의 출발한 견해로 악한 존재가 곧 사탄이며 이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소개된다.

넷째는 일원론적 견해로써 사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부정적인 모습

인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에 대하여 에스겔 28장 12-19절과 이사야 14장 12-20절을 삼중 해석함으로써 사탄은 기쁨부음을 받은 그룹의 타락이며 실제로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적 견해의 첫 번째는 에스겔 28:12-19이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총중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쁨 부음을 받은 뉘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두로 왕을 삼중해석하는 경우 두로 왕은 사탄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정사와 권세 계급의 천사들 중 몇을 유혹하여 자기 부하로 만듦)로

해석할 수 있으며 "완전한 인"은 완전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로 model이었으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는 뱀을 조종하고 있던 것이 사탄임을 알 수 있으며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는 음악을 하는 기능이 주어졌던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존재에 대하여 "기쁨부음을 받은"이라함은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으로 영계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가 지음을 받던"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는 종족으로, 사탄과 악령은 무리로,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탄과 악령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타락했으므로 종족으로 창조된 인간과 달리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부음 받은 뉘는 그룹의 죄는 교만이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제 20:1에 근거할 때 뱀 뱀 에덴동산의 뱀을 의미하는 것으로 뱀을 통제 한 것은 사탄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적 견해의 두 번째는 이사야 14장 12-20절로 밀턴의 실낙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천사의 타락"을 말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서 "계명성"은 빛나는 자로 바벨론 왕에게 말하는 메시지로 이사야 서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타락으로 100% 믿는 것은 문자적 해석 및 삼중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자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내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함은 이러하니라"고 함으로써 사탄이 살인자,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거짓말은 사탄의 행동이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사역을 살펴보면 거짓말하게 하며 자만심을 갖게 하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피조물성, 즉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게 하는 등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실족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인간 이해하기 7.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구독료는 5만원 입니다.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박형진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2,200,000	전기원	50,000	이상철	50,000
총회신학교	1,500,000	박경남	3,000,000	이하종	50,000
박 형 진	800,000	꿈꾸는교회	400,000	서현교회	50,000
경기 노회	400,000	류현욱	300,000	벨엘교회	350,000
전북 노회	300,000	김일출	1,000,000	김종봉	300,000
전북동노회	400,000	박광식	350,000	길교회	50,000
전북중부노회	150,000	조강희	50,000	김정호	350,000
서울남노회	300,000	신연식	50,000	강대민	300,000
서울동노회	500,000	박연성	50,000	이경근	300,000
대한예수교	500,000	김진영	350,000	이부교	350,000
전남 노회	300,000	육한수	50,000	김천기	50,000
남부 노회	100,000	박춘배	350,000	대한예수교장	350,000
박 성 욱	600,000	권병락	100,000	정완득	3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지상설교

“시온에서 안일한 자”



서용진 목사
(상촌교회)

드고아의 목동 출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정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날 것임을 외치면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에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마 11:28, 29).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사 57:20) 성도의 삶에는 수고가 끝나고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계 14:13, 히 4:9, 11). 그럼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있어서는 안될 안일에 대해 말하면서 안일에 빠진 자를 화 받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로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안일함에 빠져 다른 사람에 대해, 주변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나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육신적 절고에 시달리거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환경적 어려움에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자칫 무관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 주고 있습니다.

1. 시온에서 안일한 자는 누구인가?

주제 넘은 자, 건방진 자, 방종하며 조심성이 없는 자, 제멋대로 행하며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자가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는 이와 같이 잠든 영혼에 주목하면서 특별히 시온 즉 예루살렘에 거하며 안일에 빠진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거한다고 해서 저절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날 때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도시의 영적·물리적 힘을 믿고 안일에 빠진

자는 마치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운 자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 시온에서 안일한 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안일에 빠진 자들은 심판의 날이 멀다고 강요한 자리에 가까워지는 잘못을 범합니다(3절). 안일한 자는 지금 간접적인 경고와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 아직도 멀리 있다고 하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또 그는 상아 침상에 누워 사치와 방종을 일삼습니다(4절). 형제의 영적 고통과 육적 아픔에 무관심하며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는 무감각한 것을 말합니다. 또 책임을 전혀 질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 다른 사람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며 조심성 없이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나 코소보 난민, 탈북자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성도가 행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시온에서 안일한 자를 책망한 아모스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바로 알고 불의한 것은 그 시작부터 끊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기에 분주해야 합니다. 봉사할 기회를 찾아 헌신하기에 바쁘고 말씀 읽기에 전념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시간을 아껴 전도하는 일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충성을 모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안일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영광교회 임직 감사예배

권사 서송선, 집사 원종남; 3월26일



경기노회 주영광교회(조혜진목사)에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 임직예식을 거행하여 집사와 권사 각 1명씩을 임직하였다. 이날 임직예식에 앞선 감사예배는 담임 조혜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

포하였다. 곧이어 진행된 임직예식은 임직자들의 서약을 받고 담임목사의 안수기도 후에 두 사람이 각각 집사와 권사로 임직됨을 공포하였다. 꽃밭교회 박광식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온누리 사랑교회 이해동목사는 교인들에게 각각 권면하고, 노회장 박만진 목사의 축도로 임직 감사예식을 마쳤다. 한편 성북구 화랑로 38 길 20에 위치한 주영광교회는 3년 전에 경기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극한 어려움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여 첫 임직예식을 거행하였으며 담임 조혜진 목사는 경기노회기 세운 제1회 여성목사로서 노회의 기대가운데 건강한 목회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한다.

새롭게 태어난 예수제자교회

전북중부노회 가입; 파송 당회장 박찬섭목사

예수제자교회(담임교역자 박종예전도사)가 지난 3월 28일 전북중부노회에 가입하고 노회는 박찬섭목사(나눔교회)를 당회장으로 파송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제자교회는 2018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던 중에 당시 담임 박준하 목사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투병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였다.

박종예전도사는 목사의 내조자로서 교회를 섬기던 중이었으나 전체 교인들이 하나같이 남편 박 목사의 후임으로 섬길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왔고,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에 교분을 쌓아온 박찬섭 목사가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후견을 자임하여 교회가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었다.

예수제자교회 교인들은 뜻을 모아 지난 3월13일에 공동의회를 열고 개혁교단, 전북노회 가입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12일 전북중부노회 제173회 정기회에서 회원가입을 허락을 받게 되었다.

박종예 전도사는 안산대학교와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한 인재로서 2022학년도 봄 학기에 전북개신원에 입학하여 신학수업을 받고



있다. 전북중부노회는 예수제자교회의 당회장으로 박찬섭목사를 파송하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선한 결정을 하였다. 당회장 박찬섭 목사에 의하면 지금 예수제자교회는 30여명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으며, 박 전도사는 복음전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그간의 경험을 살려

전교인들의 영적지도와 교회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라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예수제자교회는 제자훈련과 양육, 셀 별 리더와 함께 매주 목요일도와 성경통독,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는 등 성도가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장래가 아주 밝은 교회로 기대한다.



전북동노회 교역자회

새 회장 생명의 빛 교회 정인직목사 선출

전북동노회 교역자회(회장 정대진 목사)는 지난 4월 4일(월) 오전10시 전북개혁신학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교체등 회의를 통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김대성 목사()가 인도하였으며, 부회장 최점용 목사(00교회)가 대표로 기도하였다. 교역자회 회장 정대진 목사는 인도자 김대성목사가 봉독한 마가복음 8:34을 본문으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연보를 한 다

음에 회계 양정자 목사(00 교회)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서기 김대성 목사의 광고가 있는 다음에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바로 이어 진행된 회의는 채택된 회순에 따라서 전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순으로 진행되었고, 새 임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명단은 별항과 같다. 전북동노회 신임원 회장: 정인직 목사(생명의빛 교회), 부회장: 강일신 목사(더풍성한교회), 서기: 김드보라목사(향기나는교회) 회계: 손경희목사(생명생교회) 총무: 박양미 목사(산마루기도원)

포토 뉴스



지난 부활주일예배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



전북동노회 중부시찰 단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종학 목사

총회신학 연구원 후원 현황 (2022년 1월)

박형진 총회장-천양빈주기 / 전국장로연합회-50만원
무명-100만원 / 안산 새은교회-10만원

어려울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 접 수 : 2021년도
-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 문의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동노회



노 회 장 임용태 목사(한빛교회)
부 노 회 장 이원식 목사(인천은혜교회)
서 기 김종화 목사(임마누엘교회)
부 서 기 최승규 목사(호산나교회)
회의록부서기 이중섭 목사(주사랑교회)
회의록부서기 심규진 목사(물댄동산교회)
회 계 신인숙 목사(새생명교회)
부 회 계 이은애 목사(복있는교회)

더불어 생활할 正論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봄비람



류현옥 목사
(증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한 할매가 “이바라 친구야 예수가 죽었다 카데?”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카드노?” “뭇에 찔리 죽었다 안카 나” “애구! 알구진, 이상한 머리 풀어 헤치고 땀길 때부터 내사 마 알아봤다.” 이때 알말 앞던 할매가 “이보래 예수가 누꼬?” “몰라~ 우리 메느리가 아버지 아버지 케사이 사돈 어른 인갑지 뭐” ㅎㅎㅎ* “그라모(그러면) 사돈어른이 죽었는데 문상은 갔더 나?” “오데(아니), 안갔따” “와 안갔노?” “검은 옷까지 다 준비해노코 갈라겐는데, 사흘만에 도로 살아났따 캐서 안가판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부활절은, 천지창조, 성탄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에 소망이 되는 부활절을 맞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셨으며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사망의 무덤에서 살아나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좋은 약을 더 개발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한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면 얼마 더 살겠는가?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앞으로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이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175세가 아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

외국에 무덤을 가보면 언제나 “여기 누가 잡들다.”라며 무덤이 없다. 그냥 다 평지이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무덤을 크게 한다. 인간의 종착역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무덤에 가서 먹고 살라고 그릇, 항아리, 밥술, 손가락을 무덤에 넣어 주는데 죽은 자가 그 안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다. 우리는 무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걱정 근심이 없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바야흐로 개나리꽃이 만발하고 새 풀이 파랗 파랗 자라나기 시작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요, 향기의 계절이며 새 생명을 알리는 계절이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빈 무덤이다. 무덤을 깨뜨리시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다. 우리가 힘을 쓴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부요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며, 지식도 발달하고 교육도 발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절기에 우리의 신앙도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봄비람이 되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일깨울 수 있기를 소원한다.

조직신학



김재세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난호에서 이어짐)
“수동적”이라는 형용사는 원래 라틴어 동사 “파티오르(고난을 당하다)”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가 전 생애를 순종하신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에 그가 몸과 영혼 안에서, 전제 인류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것이다.”

위 문장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37번에 설명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는 60번 문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뤄볼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때에, 결론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두 가지로 분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 전체가 다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더욱더 정점에 이르러서 처절한 희생이 개입되어있

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찰스 핫지 교수가 이 두 가지의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자 한 바는 그가 인간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부활하기까지의 전체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속 언약에 따라서 자발적인 확실성을 실행하고, 또한 행위언약에서 요구된 둘째 아담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고자, 성자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언약들의 법적 요구들을 성취하였음을 믿는다.

성자께서는 이 언약들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능동적인 고난을 당하는 순종을 하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고 진노를 없애주셨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칭의와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의로움을 전가(imputation)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7)

종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가리킨다.

수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받게 되는 형벌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하신 것을 말한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으로 영화로우신 지위로 복귀하셨다.

수동적 순종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으로 순종하신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이루고자 수동적 순종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예수님은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해들, 압박들, 거부당함, 상처들, 고통들을 예수님도 역시 태어나

는 순간부터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다 체험하셨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고난 받는 종”이다(사 53:1-9).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선포했다(요 10:17-18). 그분은 순교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종보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종보자의 피와 눈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다”(막 10:45).

메이첸 박사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 동안 벌어진 일은 죄의 값을 지불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생애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영광스럽게 준수하는 일부분들로 구성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줄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그리스도 자신이 만물의 주님이시므로 전혀 그렇게 순종할 것을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앞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순종적 인 생애를 간략하게 압축하자면, 능동

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다소 신학용어 상의 오해가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이 쓰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 즉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낸 대속제물 되심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가 받는다는 것이 대속적 형벌이라는 속죄론의 핵심 사항으로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물론이요, 루터파 신학자들까지도 대부분 동의하고, 공유한 부분이다.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모두를 이루심으로써, 율법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성취하셨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 (다음호에 이어짐)

목양칼럼



김종웅 목사
(충울신교회 담임)

하나님을 발견한 후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밤 꿈에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에게 물었다. 이에 그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만이 생애 최대의 기쁨이요, 오직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인 페퍼 마틴(Pepper Martin)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었다. 보통선수들 같으면 안타 왕이 되고 홈런왕이 되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대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가장 큰 아픔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가?

오래 전에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적어서 제출하라 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귀환 한 분이 적어서 낸 소원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그 권찰은 당시 폐기함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병 고침 받는 것이 소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분은 뜻밖의 소원을 적어 내었다. 그것은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해 두었는데, 꼭 당첨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한 달이 채 못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이 되었고, 그 남편은 재혼하여 새로 맞이한 아내와 그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결국 그 권찰의 소원은 이루어졌으나 과연 누구를 위한 소원이었던가? 지난 주간에는 한분의 집사님이 90세

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동란을 겪는 등 험한 세월을 살면서 여자의 몸으로 부동산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세 아들을 기우는데 일생을 바쳤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물라도 마지막까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단 한 명의 아들도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화장한 그분의 유골은 잔디장을 치러서 안장했는데, 직경 15cm, 깊이 약 30cm 되는 원형으로 된 공간에 매장되었다. 이 두 분의 마지막 생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세상욕심을 버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어쩌하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같이 땅에 갇만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AD 306-307년까지 로마황제를 지냈던

세베루스는 “내가 곧 세상이다”라면서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임종의 순간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라고 탄식하며 “화상 후 내 유골이 담겨질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신하가 항아리를 가져오자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조그만 항아리여,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미약한 존재였던 한 사람의 뼈를 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인데,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자세로 시기질투 하고 미워하면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피아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가? 왜 북한의 지도자는 주민들은 핏빛고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러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걸까? 결국 그들도 얼마 안 있

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걸까? 문득 모세가 남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신 32:28-29). 모름지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종말은 분별하고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라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3:1,2)

전북중부노회 제173회 신임원



- | | |
|--------|----------------|
| 노 회 장 | 정완득 목사(성인교회) |
| 목사부노회장 | 최헌일 목사(성예교회) |
| 장로부노회장 | 안영조 장로(동산교회) |
| 서 기 | 박속희 목사(동산교회) |
| 부 서 기 | 박찬섭 목사(나눔의교회) |
| 회의록부서기 | 정영덕 목사(파송) |
| 회의록부서기 | 정행남 목사(벧엘교회) |
| 회 계 | 진상운 목사(에벤에셀교회) |
| 부 회 계 | 김주연 목사(로렘나무교회) |

전북노회 제173회 정기회



- | | |
|---------|-----------------|
| 노 회 장 | 박종윤 목사(화평교회) |
| 부 노 회 장 | 홍주일 목사(모악교회) |
| 장로부노회장 | 조성윤 장로(길교회) |
| 서 기 | 김해수 목사(예수촌 교회) |
| 부 서 기 | 노연수 목사(군산교회) |
| 회의록부서기 | 한권능 목사(수정교회) |
| 회의록부서기 | 유덕수 목사(반월주사랑교회) |
| 회 계 | 김재호 장로(한소망교회) |
| 부 회 계 | 양승철 장로(서헌교회) |

재 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야.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는다. 부활은 십자가고난의 꽃이며 사랑의 열매이다. 죽음 아래서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길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예수의 부활은 생명이며 우리의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의 출구이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세 소망이 있다.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부활안에 있고 이 생명이 있기에 어디서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까지도 궁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이에 안주하지 말고 주의 대 명령을 따라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궁지로 아울러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 주가 가라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기쁨이요 자랑이며, 또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영원히 노래하자.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역지로 이해하려면 참으로 황당해진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으로 믿게 되면 부활은 우리의 축복이요, 능력이다. 그 당시 세상은 예수의 죽음을 기쁨으로 삼았으나 도리어 제자들은 근심이요 아픔이었다.

그러나 삼일 후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제자들의 승리로 기쁨으로 돌아 왔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과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또한 기쁨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낼 분이 절대 아니다.

그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

명을 주셨다.

과연 예수님은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하기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집트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스핑크스를 만들고 파라미드를 세운다. 일평생 동안에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무덤을 꾸미는 것이 그들의 종교여 신앙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 소망가운데서 보무당당하게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쁨이요, 영원한 희망이다. 우리가 부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소유이다.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요즈음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죽을 각오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흔히 즐겨 써왔다.

요즘에 와서 그 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성령의 힘으로 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부활의 생명은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망해도 일어서고 병들어도 죽지 않으며 죽더라도 살아난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주의 자녀이며 또한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녀이며 소유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환경적인 난제도 두렵지 않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 않다. 자녀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두려워마라 내니! 내가 세상을 이겼대! 고 말씀하신다. 부활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증경총회장, 본보 사장)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처신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짝 맞아서 아주 답답한 인사가 있는가하면 정 반대인 경우의 사람도 있어서 세상 참 모를 일이라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속된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기방 끈이 툇 없이 짝아 비록 아는 것은 일천하지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거지에 있어서 매우 진중해서 덕이 넘친다.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도 사리가 분명하고 아주 사려 깊어서 높은 격조를 보이니까 한다. 넘볼 수 없는 품위 마저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치면 갑탄

을 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비교된 경우, 전자는 지식의 사람이고 후자는 지혜의 사람이다. 지식인으로서는 지혜를 겸비하면 이에 더 좋을 것이 없다. 하지만 많은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미련하다거나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라는 혹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지식은 좀 덜해도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깊은 삶의 맛을 느끼게 하여 인간미 넘치는 진국이라는 호평을 듣는다. 이를 한문 글자로서 분별한다면 지(知)와 지(智)의 차이일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지>로 발음되는 같은 글자이나 생각하는 수고를 조금만 더하면 두 글씨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곧 알게 된다. <知>라는 글씨는 옥편에 알지(知)자라 했고, “화살(矢)처럼 정확한 입(口)”을 나타내는 글씨라는 설명을 더한다.

知는 무엇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요, 영어로 하면 Knowledge 이다. 어떤 정보를 바로 아는 것이 지식이요, 그런 사람을 지식인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래 知(=지식)는 단순한 동작이나 행동을 의미할 뿐 자기 머리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응용하고 판단하고 발상하고 창조하며 행동시키는 창의적 동작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지식인 일수록 지(智)를 더욱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는 영어로 Wisdom 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는 것(知)에 해(口)를 더한 글씨”로서 “알고 있는 지식 이 해와 같이 빛이 난다”는 뜻을 지닌 글씨이다. 그 글씨 자체가 지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곧, 알(知)의 동작에 앞서 사색하고, 응용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발상하여 모색하는 창조적 행동이 고루 내포되어 있음이 지혜요, 지라는 글씨이다. 단순히 아는 것은 학교에서 배움으로써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외무면 되고, 암기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서 필요에 따라 꺼내어 쓰면 된다.

그러나 지혜(智慧)는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을 경우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습득에만 열중할 뿐 지혜의 추구는 전혀 도외시키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 왔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철저하게 암기중심의 교육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그런 교육의 결과로 창의력을 상실하여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뒤지는 그런 사람을 양산하고 말았다.

아마도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고 외친 그 구호가 세뇌효과를 나타내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는 것을 나쁘다할 수 없고, 아는 것을 도외시해도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지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식, 소위 가랑꾼이 심히 짧아이는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작은 지식이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지혜가 부족하

여 주변머리 없이 처신하는 사람을 두고 “섬 글을 배워 뒷 글로 풀어먹는 자”라 했고, 그 반대로 배움은 적으나 그 적은 지식을 잘 풀어 유익하게 쓰는 지혜로운 사람은 “뒷 글을 배워 섬 글로 풀어먹는 자”라 했다.

우리나라의 知 중심의 암기식교육 방식과 대비를 이루는 교육방식이 유대인의 지혜교육일 것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지혜의 책이라 불리는 탈무드를 제3의 교과서로 삼아 가르친다.

그 교육은 단순한 암기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방식을 취하여 왔다. 21세기 한국의 신학교육은 知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지식 자랑에 바쁜 목회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일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상대하는 사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지(智)가 요청되므로 교육 또한 그런 방법을 지향해야 마땅할 것이다.

봄날의 단상(斷想)

누리지 못하고 보내네!” 이런 수준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봄의 길목에서 벌써 여름을 기다리는 우리네 의식이 민망하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기후조차도 우리네 의식에 편승하여 봄의 실존을 지금 맛보고 있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봄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사과 재배단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니 은근히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나는 계절을 이렇게 말한다. 겨울은 밤이 긴 만큼 휴식과 여유로움을 가지는 한편, 가을의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의 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에 나아갈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겨우내 축적된 에너지, 그리고 미래에 기대하는 열정을 덧입혀서 맞이하는 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씨를 뿌리고 새싹 틔우는 출발의 계절로서 봄이기에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이 먼저 얼굴을 내밀 것이 아닌가?

그러나 땅과 눈물 없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질문에 삼척동자라도 분명한 No(No)를 말할 것이다. 성공과 성취, 그리고 승리에는 땅과 눈물 그리고 피까지 요구하는 것이 상례(常例)가 아닌가?

배짱이와 개미의 이슬우화가 보여 주는 교훈처럼 여름에 그늘에서 노닥거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풍요로운 가을은 실종된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름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땅과 눈물의 값을 알게 하는 교훈을 경시할 수 없으리라.

좋은 결과를 위해 낮의 긴 시간을 허용하신 조물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땅과 눈물이 뒤섞인 여름 한 철은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름을 눈물과 땅방울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은 춘하추동 사계절을 살아가는 우생종 피조물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람뿐이다.

그리고 땅과 눈물로 여름을 보내고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복이 충만한 진저! 우리에게

게 사계절의 영향력이 주는 민족적 조급성인 빨리빨리 의식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유로운 반추(反刍)가 더 좋은 면으로 발전하면 얼마나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하다.

우리의 빨리빨리 의식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보이지 않은 공헌도가 있어서 오늘의 나라모습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생각이 국민적 의식으로 팽배했다라면 국가적 천년 미래가 하늘 길처럼 휘호를 그려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일찌감치 합류하여 한반도의 흡수통일은 말할 것 없고 빈민 국을 살리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세계의 등불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것은 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감각을 충분히 살려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지향적인 감각과 의식으로 바뀌어 조상이 남겨주신 유산인 지혜에 우리의 축적된 지식을 융합하고, 지금까지 이웃 나라를 침범하거나 넘보지

않은 선한 국민성이 기반이 된다면, 다 같이 복지영역을 넓혀가는 선두대열에 설 것이 분명할 것이 분명치 않은가?

이것 역시도 빨리빨리 의식을 가동하여 시간을 단축하면 우리 생전에 그 꿈 이뤄질 것인데 하는 아쉬움과 염원을 가져본다. 우

린 꿈보다 해몽이란 말을 즐겨 사용한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아전인수 격 해석보다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 난관을 극복한다는 자신의 인생을 운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지혜와 사계절이 주는 결과로 알기에 봄의 길목에서 아련히 피어나는 아지랑이 뚫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대한의 후손들이 꾸는 꿈을 미소로 바라본다.

봄은 시작을 독려하고 여름은 눈물과 땅을, 가을엔 감사의 계절로 만들고 그리할지라도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난 일 년을 성찰하는 계절이 되기를 간곡한 심정으로 바랄 뿐이다.



새은혜교회



담임 박형진 목사

벤엘교회



담임 박성욱 목사

영복교회



담임 이충년 목사

한소망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종율산교회



담임 김정용 목사

양영자 사모 내조 記~14



양영자 사모

양영자 사모는 재인교회 원로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2002년 2월 우리 부부는 청년회원 과 대학생 10여명이 함께 선교지 방문 팀을 구성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시작 하였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박성환 선교사 부부의 사역지인 대만 선교 여행을 위해서였다. 우리들은 선교현장을 돌아봄으로써 선교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선교현장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날이 왔다. 우리 일행은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몇몇 교우들의 배웅을 받으며 인천 공항을 향하여 출발했다. 버스로 4시간을 달려 세계 1등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2시간 30분을 날아서 타이페이의 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에는 박성환 선교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박 선교사님이 빌려온 차를 타고 대만남부지역의 핏자락에 있는 타이난 시에 당도하여 준비된 숙소에 들었다. 그날부터 5박 6일의 짧지 않은 일정이었으나 박 선교사님 부부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도록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성심성의를 다해 우리를 섬겨 주셨다. 박 선교사님은 첫 날부터 마치는 날

까지 우리와 함께 움직이셨고 사모이신 조을순 선교사님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 등으로 바쁜 일정을 가지면서 틈틈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 에덴교회는 박 선교사님 부부가 출석하며 동역하는 교회이다. 초교파 교회로서 대만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이 있으며 담임 장전지 목사님은 대만에 서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학교를 세워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차세대 일꾼을 세우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다. 대만 현지인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격 그 자체였다.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다 보니 이런 감격과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후원은 보잘 것 없이 미미한데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은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재정

후원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함이 심히 안타까웠다. 우리의 대만방문은 선교지 탐방성격이었기에 선교활동이나 봉사계획은 많지 않았다. 박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 심방계획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병실을 방문하여 환우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보여드렸다. 조 선교사님이 대만어로 두 세곡 찬양 가사를 한글 발음으로 적어 주셔서 대만어 찬양을 불렀다. 그중에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율동하며 불렀는데 환우들이 웃으며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불러주는 찬양이 그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던 같았다. 기뻐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도 즐겁고 감사했다. 우리는 박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사회문화탐방의 기회도 가졌다. 첫 번째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우상문화였다. 집, 집마다 신당이 있고 시내 곳곳에 사당과 우상들이 있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집안의 신당에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폭죽 터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길에는 폭죽 연기가 뿌연게 덮여있었다. 이런 장면들을 체험하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가슴속으로 확 다가왔다. 박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대만의 여러 가지를 보게 해 주셨다. 유명한 야 시장은 대만 사람들의 음식, 과일, 절임 먹거리들, 의상, 모자, 신발, 장식품, 가방, 생필품을 비롯해서 야시장을 즐기기에 목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다.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떠밀리듯이 휩쓸리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비좁은 식당에서 음식도 사서 먹었다. 그밖에 민속촌을 보여주고 기이한 돌들과 바위로 이루어진 바닷가도 보여주었다.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하)

편집실 제공

칠후 같은 어두움이 세 시간이 지속된 다음에 예수님은 네 마디 말씀을 토해 내셨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기까지는 숨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피의 설교,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않으셨을까?

4. 엘리 엘리 사바다나(마27:46)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고통의 절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 면서 까지 사랑하시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 넘치는 감사의 찬송이었으리라. 우리가 버림을 받아 비명을 질러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비명을 지르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참음이 되었고 주님께서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를 찬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공의로 우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를 버려야만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큰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이다.

5. 내가 목마르다(요19:28) 예수님 자신의 타는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목말라서 질려야 할 소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내가 목말라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목마르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마르시므로 해서 내가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는 육신을 입고 마지막까지 감당하신 사실을 입증하셨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형벌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 모든 역량, 생명까지 다 바쳐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해야 한다.

6. 다 이루었다(요19:30)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므로 자기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이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다.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역사와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져 내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성되고, 마귀가 항복을 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인류의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을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회를 상실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물려주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사죄의 은총과 영생의 복 주심을 완성하셨다. 우리의 구원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도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시범의 말씀이기도 하다.

7.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말씀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다. 스데반을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었고 야고보를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었고 베드로를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미리 드린 부탁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懸斷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봉양 삼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셨다.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며 사는 것이며, 바람직한 성도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소망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비록 오늘의 나 는 세상에서 죄를 범한 강도와도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장현심 자전 수필



수필가 장현심

중견 수필가 장현심님께서 펴낸 몇 권의 수필집 중에서 자전 수필집인《반그리니에 물들다(2014년)》를 본지에 틈틈이 연재하여 색다른 읽을거리를 제공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초대 칼럼(문용길목사)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서 여성평신도여서 용기를 내 보았다. 장현심 집사는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났다. 인천인일여고를 거쳐 숙명여자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2002년 6월, 서울살이를 접고 원주 치악산 반그리니 계곡에 새 터를 잡고서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정리한 삶의 족적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 분은 지금 원주누리야간학교 교사, 원주노인복지관 문예 창작반 강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원주00교회를 섬기고 있다.

인동 장 씨의 시조는 장금용 할아버지시다. 태사공 장 정필의 세 아들 중 한 분이다. 고려 태조 때 중국에서 왕의 스승으로 오셨는데 땅을 하사하며 붙잡는 바람에 결혼해서 아예 이 땅에 눌러 살게 된 귀화인이다. 인동은 경북 칠곡군에 있다. 행정구역 통폐합을 거치면서 인동현에서 인동군으로, 다시 칠곡군에 병합되어 인동 면이 되었다가 1977년에 구미시에 편입된 곳이다. 시조인 장금용으로부터 내 증조부까지 34대에 이른다. 도원공파에 속한다고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다. 장배환 증조할아버님에게는 장배룡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증조부로부터 항렬자는 배, 동, 급, 식, 환, 기, 석으로 이어진다. 지금 석자 항렬까지 왔다. 장배환증조부는 황해도 장연에서 1930년경에 태어나셨다. 그분은 일찍이 글을 읽어 한학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훈장 노릇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벼슬길에 오르고, 학문이 깊다는 소문은 먼 곳까지 퍼져서 집에 기숙하며 글을 배우는 생도들이 많았다. 또 시인 목객들도 자주 찾았다고 들었다. 장 씨 집안으로 시집온 증조할

머니는 성이 조 씨시다. 그분의 친정 아버지(내게 진외고조부 되는 분)는 아주 부자였는데 대를 이어 아들이 없이 오직 여식 하나만을 두셨다. 두 분의 결혼에 관해 전해오는 얘기는 모르나 글 읽기를 숭상하던 시절이었으니 동네 부자의 눈에 들어 사윗감으로 낙점되었던 게 아니었을까. 두 분은 결혼하여 변절한 일가를 이루었다. 증조부는 가선대부라는 벼슬을 지내셨고 재력도 상당하였다. 사망 30 리에 그분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으레 증조부께 들러 신고를 하였다고 하니 집안의 전성기는 그때가 아니었나 싶다. 명실공이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셨던 분이시다. 우리 집이 장연 군내에서 유지로 살았던 것은 모두 증조부 덕분이었다. 벼슬을 할 때 나라에서 땅을 많이 하사 받았다고 한다. 인품이 좋고 착실한 분이였다. 또 진외고조부께 아들이 없어서 모든 재산을 사위에게 물려주었다. 증조부가 살던 시대는 1850년대였다. 우리나라에 외세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전이라서 그분은 마지막 양반세대로서 체통을 지키며 사셨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고 대한미국의 건립과 맞물리는 혼란의 시기였다. 반상의 제도가 무너져서 양반의 체모도 갖추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셨다. 그분들의 생이 세월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증조부가 이룬 부는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대립된 이념,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르조아 계급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집안몰락의 위기로 내몰렸다. 공산주의자들의 타도대상인 지주예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건 파란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이산가족이 됐다. 이북에는 친할아버지와 충도 오빠(다섯째 오빠)가, 그리고 셋째 율케와 조카들이 남았다. 그 사실은 남한에 살아있는 우리가 족의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친가 쪽으로는 8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아버지가 독자시고, 할아버지도 독

자셨으니 4촌이나 6촌이 없다. 종가인 데다 아버지가 독자라서 증조부님의 상을 당했을 때는 혼자서 문상을 받느라 깃광목 비선이 당일로 해했다고 한다. 제사 때면 동네 여자들이 일주일 전부터 일을 거드느라 온 동네가 며칠씩 밥을 짓지 않았다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들었다. 증조부님의 동생 되시는 장배룡 증종조부님은 장동형 증조부님을 낳았고 그분은 연수, 홍급, 명급 이렇게 세 아들을 두셨다. 음식오빠는 연수할아버지의, 신식오빠는 홍급 할아버지의, 총식오빠는 명급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작제가 가까운 종친들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남할 때 족보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남에서 가 호적을 하였기에 고조부님의 함자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족보나, 조선 왕조의 족보는 알면서 정작 우리 집안의 뿌리를 모른다니 부끄럽다. 어른들에게 귀동냥한 이야기를 정리하며 지금 아득한 기억 저편의 뿌리를 찾고 있다.

추

부

활

꿈꾸는교회

담임 황호관 목사

중심교회

담임 박경남 목사

동명교회

담임 류현옥 목사

동주교회

담임 김양섭 목사

임마누엘교회

담임 윤서구 목사

제106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6회기 총회주일은 2022년 1월 30일(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노 회				경 서 노 회				경 성 노 회			
											
박만진 목사 (덕소제일교회) 320,000원	박광식 목사 (꽃밭교회) 400,000원	이해동 목사 (사랑온누리교회) 200,000원	박동혁 목사 (선한이웃교회) 150,000원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1,000,000원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340,000원	하예성 목사 (생명줄동포교회) 150,000원	신연식 목사 (디베라교회) 200,000원	박성욱 목사 (벤엘교회) 400,000원	김진석 목사 (소망교회) 50,000원	진인자 목사 (갈멜산교회) 50,000원	장성덕 목사 (호산나교회) 50,000원

경중노회	서 울 남 노 회				서울동노회	전남노회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전북중부노회		
											
이철영 목사 (은혜로교회) 150,000원	강대민 목사 (성현교회) 400,000원	김선영 목사 (비전교회) 200,000원	박춘배 목사 (수원성심교회) 1,500,000원	문만호 목사 (양곡제일교회) 100,000원	윤서구 목사 (임마누엘교회) 1,010,000원	서용진 목사 (쌍촌교회) 200,000원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1,500,000원	최갑철 목사 (남광교회) 700,000원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50,000원	유남규 목사 (어울림교회) 500,000원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520,000원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박형진 목사
서 기 김정호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교 단 본 부 이 전 감사 헌금

												
총회장 박형진 목사 (새은혜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 (성인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윤서구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서 기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1,000,000원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덕소제일교회) 1,000,000원	증경총회장 임종학 목사 (재연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 (동명교회) 500,000원	증경총회장 이경근 목사 (임마누엘교회) 500,000원	박찬섭 목사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2,000,000원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500,000원	증경부총회장 김일출 장로 (소성교회) 4,000,000원	증경총회장 이춘년 목사 (영복교회) 10,000,000원
												
경기노회장 박만진 목사 외 1,000,000원	경서노회장 하예성 목사 외 300,000원	전북노회장 김정호 목사 외 500,000원	전북동노회 정인직 목사 외 500,000원	서울남노회 김정용 목사 500,000원	서울동노회장 임용태 목사 500,000원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임종학 박사 500,000원	전국장로연합회 김재호 장로 외 500,000원	전남노회장 서용진 목사 외 500,000원	경성노회 박성욱 목사 500,000원	조신제 목사 냉운수기 500,000원	이해동 목사 500,000원	성경·찬송 배제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벽 시 계 임용태 목사 (한빛교회) 벽 시 계 김정호 목사 (한소망교회) 반 주 기 박숙기 권사 (새은혜교회)